

2024. 1. 31.(수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1월 31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재난안전관리실 건설혁신과

건설혁신과장

윤인식

2133-8100

사진없음

사진있음

쪽수 : 7쪽

건설정책팀장

최태훈

2133-8102

서울시, 공공건설현장 220곳에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...시공 안전·품질 높인다

-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정착 위해 '숙련기능인 필수배치' 작년 52곳→올해 220곳
- 시·산하기관 발주 공사장 '인력 배치기준' 배포, 주요 공종엔 숙련자 50% 이상
- 입찰~시공 전 과정, 숙련인력 배치상황 관리... 시범사업 토대로 정식 도입 검토
- 시 "안전과 시공 품질 확보 위해 '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' 성실히 추진"

- 서울시가 지난해 시 발주 건설공사장 52곳에 숙련기능인을 필수 배치한데 이어 올해는 시범사업 대상지 규모를 4배 더 늘린 200여 곳에 중·고급 기능인력을 필수 배치한다. 특히 안전·시공 품질과 관련된 공종에는 50% 이상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 투입도 추진한다.
- 서울시는 올해 「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」를 적용한 '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'을 시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20개 현장으로 확대한다고 31일(수) 밝혔다.
- 시는 그간 건설업 특성상 불안정한 고용구조, 산업재해 위험 등으로 인해 젊은 노동력 유입이 감소하고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,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이 늘어남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.

- 건설업의 평균 근로일수는 월 11.7일로 전체 산업(16.3일) 대비 72% 수준인 반면 산업재해율은 전체 산업(0.63%) 대비 2배(1.26%) 높고, 이직률 또한 2배(전체산업 15.5%, 건설업 34.0%)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.(고용노동부·통계청)
- 또 전체 건설업 재해자의 97%(전체 3만 명 중 2만9천 명)가 근속 3년 미만의 미숙련공에게서 발생한다.(고용노동부)

□ 시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를 통해 '21년 건설공사 현장 안전 과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'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(국토교통부)'를 건설공사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.

- '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'는 경력을 비롯해 교육·훈련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, 환산 경력을 기준으로 초급(3년 미만)·중급(3년 이상 9년 미만)·고급(9년 이상 21년 미만)·특급(21년 이상), 4단계로 부여한다.
- 서울시는 지난해 시 발주 3,174개 공사, 총 24만 명의 건설근로자 현황을 분석해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·포장공사 등 8개 업종에 대한 업종·규모별 배치기준을 마련했다.

<시·산하기관 발주 공사장 220곳에 '숙련기능인 필수 배치'... 현장에 배치기준 배포>

□ 올해는 서울시·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종합공사 20 곳과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200곳, 총 220곳으로 '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'을 확대한다.

- 먼저 건설근로자공제회·서울연구원과 함께 전국의 공사 현장 2만 개소와 320만 명의 건설근로자 현황을 분석해 마련한 ‘필수인력 배치기준’을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에 배포,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배치토록 한다.
 -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등급에 따른 배치기준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와 관련 교육, 구인·구직 지원방안 등을 제공하고, 서울연구원은 데이터를 분석해 배치기준 수립과 적정성 등을 검증했다.

- 또 전문건설업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‘사업장 규모별 숙련기능인력 배치기준(안)’을 수립, 배포해 시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중·고급 기능인력을 필수 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.
 - 예컨대, 철근·콘크리트공사업 40억, 지반조성·포장공사업 20억, 구조물해체·비계공사업 5억 원으로 구성된 ‘종합건설공사’는 해당 공종 시공 시 ▲철근공 고급 1명·중급 2명 이상 ▲콘크리트공 고급 1명·중급 2명 이상 ▲포장공 고급 1명·중급 2명 이상 ▲철거공 고급 1명·중급 1명 이상을 필수 배치해야 한다.

- 특히, 시는 안전과 시공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은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을 50% 이상 배치토록 하고, 하도급 계약 시에도 해당 건설업 면허에 따라 배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. 이를 통해 하도급 계약 시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.

<입찰~시공 전 과정, 숙련기능자 배치상황 관리… 시범사업 토대로 정식 도입 검토>

- 아울러 시가 제시하는 기준이 건설공사 입찰부터 착수,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별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한다.

- 입찰 단계에서는 현장설명서에 ‘서울시 인력 배치기준’에 따라 기능등급 보유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토록 하고, 착수 단계에서는 착공 전 직종별 기능등급 증명서·예정공정표·기능인력 배치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해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.

- 시공 단계에는 필수 건설 기능인력의 배치여부를 상시 확인하기 위해 ‘전자카드제 근무관리시스템(모바일 앱)’을 활용하도록 하여 인력 배치가 적정한지 상시 검증할 예정이다.
 - ‘전자카드제’란, 건설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카드단말기에 인식(태그)하거나 위치정보 기반의 어플리케이션(앱)을 통해 본인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다.

-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업종·규모별 숙련기능인력 배치기준(안)의 적정성을 검증, 보완하여 향후 사업을 정식 도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.

- 한편 시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, ‘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’ 시범사업에 대해 원도급사의 74%, 하도급사의 71.7%, 현장 건설근로자의 81%가 ‘긍정적’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 - ‘기능등급제’가 도입되면 건설사는 ▲건설공사 품질·안전 향상 ▲상급 기능인의 현장 경험 활용 ▲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도움될 것이라 답했고, 건설근로자는 ▲경력 자격증으로 활용 ▲안정적 근무 ▲상위등급에 따른 임금인상 기대를 장점으로 꼽았다.

※ 설문조사 : 서울시 발주공사에 참여한 원도급사(200업체), 하도급사(300업체), 현장 건설근로자(100명) 등 대상 설문(2023.11.13.~12.8.)

- 시는 향후 ‘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’를 활용한 숙련기능인 배치 사업이 현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자 교육·홍보 및 건설협회 등 유관 기관·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나가고, 관련 법·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.

-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“건설공사의 품질확보는 결국 건설근로자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만큼, 서울시는 공공건설현장의 숙련기능인 배치기준을 마련해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숙련기능공 양성에 힘쓰겠다”면서 “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철근·콘크리트공사업

◆ 철근·콘크리트공사

직종	5억 미만		5억 이상 ~ 30억 미만		30억 이상 ~ 50억 미만		50억 이상	
	고급	중급	고급	중급	고급	중급	고급	중급
형틀목공	1	1	1	2	1	2	1	2
철근	1	1	1	2	1	2	1	2
콘크리트	1	1	1	2	1	2	1	2
비계	-	1	1	2	1	2	1	2
건축	-	1	1	1	1	1	1	1

지반조성·포장공사업

◆ 포장공사

직종	5억 미만		5억 이상 ~ 30억 미만		30억 이상 ~ 50억 미만		50억 이상	
	고급	중급	고급	중급	고급	중급	고급	중급
포장	1	1	1	2	1	2	1	2
토공	1	2	1	1	1	2	1	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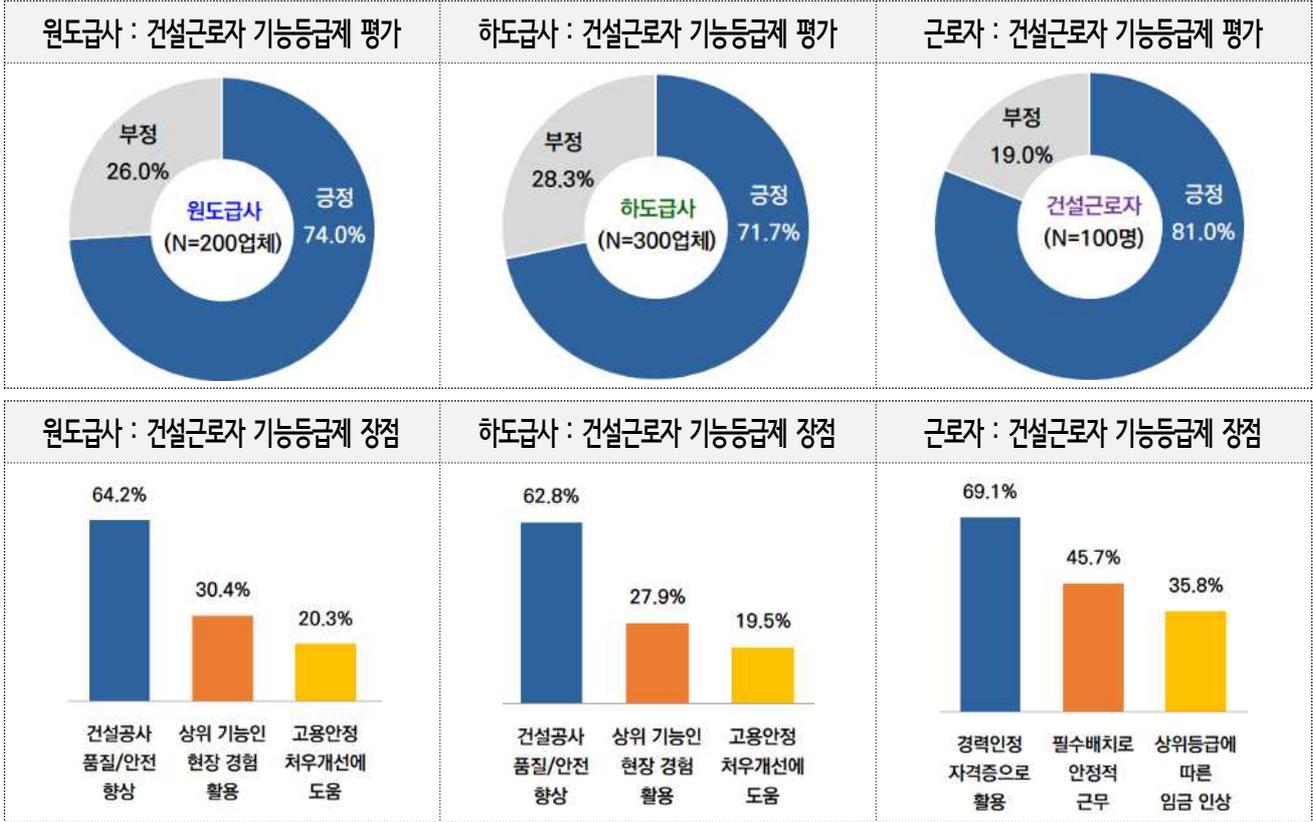
구조물해체·비계공사업

◆ 구조물해체·비계공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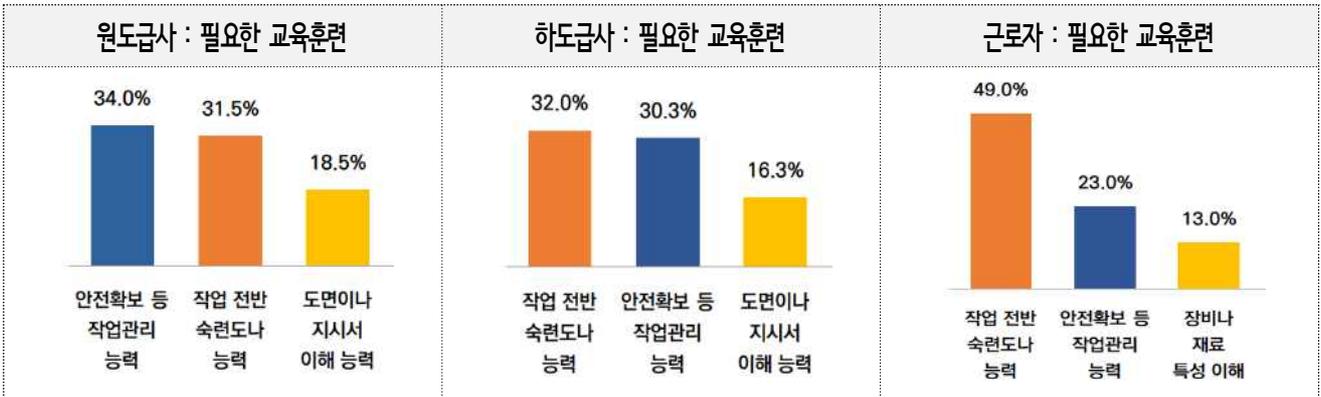
직종	5억 미만		5억 이상 ~ 30억 미만		30억 이상 ~ 50억 미만		50억 이상	
	고급	중급	고급	중급	고급	중급	고급	중급
철거	1	1	1	1	1	2	1	2
비계	1	1	1	2	1	2	1	2
철근	1	1	1	1	1	2	1	2
지붕	-	1	-	1	1	-	1	1

* 공사현장 특성에 따라 해당 직종 및 인원수 변경 가능

□ 서울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범 실시



□ 숙련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



※ 「2023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」 조사 개요

- 조사 기간 : 2023. 11. 13. ~ 12. 8.
- 조사 방법 :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전화조사, 현장 면접조사
- 조사 대상 : 서울시 발주 공사에 참여한 ①원도급사 200업체 ②하도급사 300업체 ③현장 건설근로자 100명 대상